

캔버라 한인성당



|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안드레아

| 주일미사 | 오후 3시

| 고해성사 | 오후 2시 30분

| 성당주소 |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 이메일 | canberra.kcc@gmail.com

| 전화 | 0490-795-346

| 카카오 채널 | '캔버라 한인성당' 검색

| 주일미사 성가번호 |

입 당	예물 준비	영성체	파 견
76 (그리스도 왕국)	216 (십자가에 제헌되신)	168 (오묘하온 성체)	202 (구세주의 성심이여)

제 1독서 | 예제키엘 17,22-24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화답송 |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좌) 주님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아침에는 당신 자애를, 밤에는 당신 진실을 알리나이다. ◎

○(우) 의인은 야자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향백나무처럼 자라나리라. 주님의 집에 심겨, 우리 하느님의 앞뜰에서 우거지리라. ◎

○(좌) 의인은 늙어서도 열매 맺고, 물이 올라

싱싱하리라. 불의가 없는 나의 반석, 주님이 올곧으심을 널리 알리리라. ◎

제 2독서 | 코린토 2서 5,6-10

<우리는 언제나 확신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 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 알렐루야

복음 | 마르코 4,26-34

영성체 후 묵상 |

주님께서서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겨자씨와 같은 우리를 세상에 손수 뿌리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하느님을 찬미합시다.

Today's Gospel, <Mark 4:26-34>

Jesus said to the crowds:

“This is how it is with the kingdom of God: it is as if a man were to scatter seed on the land and would sleep and rise night and day and through it all the seed would sprout and grow, he knows not how.

Of its own accord the land yields fruit, first the blade, then the ear, then the full grain in the ear. And when the grain is ripe, he wields the sickle at once, for the harvest has come.”

He said, “To what shall we compare the kingdom of God, or what parable can we

use for it? It is like a mustard seed that, when it is sown in the ground, is the smallest of all the seeds on the earth.

But once it is sown, it springs up and becomes the largest of plants and puts forth large branches, so that the birds of the sky can dwell in its shade.”

With many such parables he spoke the word to them as they were able to understand it.

Without parables he did not speak to them, but to his own disciples he explained everything in private.

그때에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는 이삭에 낱알이 영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댈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God's love will make every seed of goodness present on the ground sprout and grow. This opens us up to trust and hope, despite the tragedies, the injustices, the sufferings that we encounter. The seed of goodness and peace sprouts and develops, because the merciful love of God makes it ripen.

<성경을 읽는다는 것> - 안소근 수녀님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 날카보다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훑고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드러냅니다”(히브 4,12).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나보다 강하합니다. 나를 꺾어 놓고야 맙니다. 그래야 마땅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은 듣기 싫다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느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듣기 싫은 데도,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끄듯이 꺼버릴 수 없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은 싫다고, 구미에 맞고 듣기 좋은 말만 골라 읽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성경을 덮고 서점에 가서 훨씬 더 가벼운 책을 고르셔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가르고 내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는 것이 싫다면, 무엇하러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리스도교는 스스로 다른 몇몇 주요 종교들과 달리 계시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찾아낸 하느님도 아니고 열심히 정진하여 발견한 하느님도 아니십니다. 하느님 편에서 먼저 당신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 보이셔서 인간이 하느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탈출 3,6 등)이라고 일컬어지시는 그 하느님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인간이 혼자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하느님의 상을 고집하며 매달릴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모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교리를 배운 신자로서 하느님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느님의 신비를 다 알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하느님께서는 내가 모르고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분명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조건이고 인간의 한계라면 겸손하게 인정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느님이 아닌 내 마음대로 상상해낸 하느님을 나의 하느님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깨뜨려버려야 할 그릇된 하느님 상입니다.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났던

이들은 하느님에 대해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려야 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난 예고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도 결코 평탄치 않았던 그들의 역사 속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느님의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예언자들이 반대받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을 보아도, 하느님의 말씀은 분명 달콤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심판을 선고해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다고 구원을 선포해도 기뻐할 줄 모르던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말씀에 꺾이기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게 맞추고 싶어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원천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 객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호기심에서, 또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심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창세기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밝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성경을 성경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곧 신앙의 규범으로 읽는다면 그 성경은 나의 신앙을 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 따로, 성경의 하느님 따로일 수 없습니다. 성경의 하느님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내가 다른 하느님이 아니라 그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나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태도는 다른 책들을 읽는 태도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느끼게 되실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요구를 내세웁니다.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드러내는 하느님의 말씀은, 내가 하느님과 달리 생각하고 달리 판단할 때에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면서 회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두려워할 일만도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쌍날카보다 날카로운 하느님의 말씀의 힘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공지 사항

1. 캔버라 한인성당 교적 정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관련 안내

그동안 Excel 과 Word 파일로 저장되어 있던 신자분들의 교적 정보 (세례, 견진, 혼인 등의 성사 대장과 주소 및 연락처)를 '한국 천주교 본당 양업' 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합니다. 작년부터 한국 천주교회는 새로운 교적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의 1차적인 목적은 한국 천주교회 내의 전체 전산망을 통합하고 교적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해외에 있는 한인 성당들에게 오픈 되어있는 기능들이 있으며, 교적관리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당 신자분들께서 한국으로 귀국하시거나 혹은 다른 한인 성당들에 가지게 될 경우를 위해서, 교적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등록 관리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로운 양업 시스템에 신자분들의 교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신자분들께서 작성해주신 동의서는 스캔한 후 양업 시스템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인쇄된 동의서는 성당입구에 비치될 예정이며, PDF파일은 성당

홈페이지 후보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교적 정보는 '양업 시스템 전용 VPN'이 설치되어 있고, 인증된 PC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보안상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 현재 한국에 있는 성당에 교적이 있거나 타 한인 성당에 교적이 있는 분들께서는, 원래 교적이 있던 성당 사무실에 '교적증명서'를 요청하여, 캔버라 한인 성당 이메일로 보내 주시거나 혹은 인쇄된 증명서 주임신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여정 - 시즌 1' 안내

- 가톨릭 교리 강의 및 '거룩한 독서' 나눔 모임
- 모임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4. 첫영성체 교리반 안내

- 일시: 7월 7일(주일)~ 28일(주일) (총 4회)
- 교리 시간: 매 주일 오후 1:00 ~ 2:20
- 대상: 첫영성체를 받지 않은 7살 이상 학생
- 첫영성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 PDF 파일은 성당 홈페이지 '후보'게시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미사 참례자 수 |

6월 9일	유아·청소년: 20명	성인: 48명
6월 16일	유아·청소년: 16명	성인: 49명

| 온라인 목주기도 모임 |

화	저녁 7시
Zoom 회의실 ID: 588-790-0921	
P/W: 69g58g	

| 전례 독서 봉사자 |

이번주 (6월 16일)	주정자 루치아, 이민정 글라라
다음주 (6월 23일)	양홍석 베드로, 안영규 필립보

미사 후 뒷정리 및 예물봉헌 |

이번주 (6월 16일)	마르코반
다음주 (6월 23일)	마태오반

| 우리들의 정성 | (6월 8일 ~ 6월 14일)

봉 헌 금	\$256				
교 무 금	\$700				
강원혜	권묘순	김요한	김정수	김태룡	
남궁영근	손재호	안영규	양홍석	윤현태	
이국원	이재희	장호훈	전인철	주정자	

| 기도 지향 |

- * 이원순 글라라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 * 예비신자 - 문서 자매님과 양주영 자매님을 위해
- * 가르멜 수녀원, 성체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BSB: 062786
Account Number: 000027424

- * 이니셜이 아닌 영문 이름과 성 모두 표기해주세요.
(예: Gildong Hong)